

2017년 2월 26일 “찾아오신 예수님(21) 그를 어디 두었느냐”(요 11:32-44)

[1] 11 장 줄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보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집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죽은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중한 마르다, 그리고 뒤이어 나간 마리아는 동일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에 요한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르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 예수님의 비통함과 눈물

어느 복음서에서도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33, 38 절), 불쌍히 여기시고(33 절), 눈물을 흘리셨다는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밀집해서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때문에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단순히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일까요?

33 절. ‘그(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함은 내면이 격앙되어 화가 짙 찬 상태, 그리고 불쌍히(민망히) 여김은 상대에 대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공감되는 아픔을 말합니다.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3]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하나님의 한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의 열매를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네가 지금 거기서 왜 그러고 있지? 무슨 일인지 말해 보거라, 함께 해결하자”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 때 가지셨던 하나님 마음은 비통함과 연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창 2:17)은 육신의 생명이 끊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우선하면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잘잘못을 가리는 판단의 상태에 지배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생명의 길)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잘잘못을 따지려는 욕구는 마음에 매우 급박한 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악에 대한 판단 욕구가 지배하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무기력해지고 피상적이 됩니다.

교통 사고를 크게 당한 여인이 차에서 가까스로 나와서 울며 하는 말은 “It’s not my fault, it’s not my fault. It was green”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내 잘못 아니야... 자기 판단이 셧습니다. 이 말은 무의식 중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나의 인생에도 계속 재현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위기, 충격, 재앙이 닥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죠? 누구 잘못인가? 누가 더 잘못했나? 이 생각을 합니다.

국정 농단 사건을 들을 때 누구 잘못인가? 역사 속에서 교회의 많은 실책들을 보면서 교회의 잘못인가? 애당초 하나님 잘못인가? 만일 관계가 나빠지면 상대의 잘못인가? 나의 잘못인가? 심지어는 자식과의 문제에서도 누구 잘못인가? 선악에 대한 판단의 소용돌이는 거의 항상 제 1 순위로 몰아칩니다.

각자가 이런 선악에 대한 판단 여부에 고착되어 씨름하면 서로 힘들고, 혼자서도 힘들고... 그러다가 삶이 지치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불필요한 소모가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셔서 어디 있느냐고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줄거리와 결론은 아담 때부터 가지셨던 이 하나님의 비통함과 눈물을 백성들이 전혀 인정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백성들은 진실로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해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쳤어도 하나님께로 향한 길은 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AD 70 년, 135 년에 일어난 역사의 증언입니다.

[4] 그를 어디 두었느냐(34 ㅈ)

예수님의 이 질문은 창세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자매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 32 절). 아담과 하와의 판단과 탓하는 모습의 재현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럴 수 밖에 없는 내면의 상태와 죽음을 대하는 나약한 태도 앞에서 단지 비통함과 연민으로 우셨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주님께 탓하는 이들의 내면의 상태, 그리고 갑작스런 상실로 빚어진 절망, 또한 사탄의 최종 무기였던 죽음 앞에 철저히 무기력하여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주님께서서는 비통히 여기실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판단과 행동에 반응할 때, 예수님처럼 자기 판단으로 응수하지 않는 수준은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나의 판단을 접고 상대를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마음의 실체는 비통함이고 긍휼히 여김이고, 눈물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맺음>

그를 어디 두었냐고 말하며 흘리신 주님의 긍휼의 눈물 속에 나사로의 부활의 희망의 빛이 비추입니다. 이 주님의 비통함과 눈물을 느끼고 배우면 나사로와 같이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질문>

1. 오늘 본문을 통해 표현된 예수님의 마음(감정) 안에서 나사로의 부활의 서곡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한 구절을 다시 보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보세요.
2.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일을 하시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 시작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3.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인간의 강렬한 욕구는 거의 본능적입니다. 이 상태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하나되어 더 깊은 평강과 높은 자유를 누리는 길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느끼고 공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질문들은 다소 깊은 통찰과 진실성이 필요하니 각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